

제2337호 2018.12.23·25. 대림 제4주일·주님 성탄 대축일

대림 제4주일 강론

“그 사람의 원조”

대림 제4주일인 오늘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가 산골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故 함석헌 선생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만릿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남녀 사이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한 생명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마리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고 응답은 했지만 여전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을 마리아. 온갖 근심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을 마리아.

그녀에게 엘리사벳은 시인이 동경하며 노래했던 그 사람이 었나 봅니다. 마리아는 말 못 할 사연을 안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녀에게 답답한 속마음을 풀어 놓고 위로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맞이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녀 입에서 메아리쳐 나오는 속삭임은 마리아에게 그저 그런 위로 이상입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 마리아에게 위안과 평화를 선사해 주었을 엘리사벳의 이 말은, 믿는 우리들의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사람의 원조이신 그분께서 맘 둘 곳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안과 평화와 희망을 선사해주시려고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문성 마르코 신부 | 국내 연학

대림 제4주일 진례

2~3면 교구장 성탄 담화문

제1독서

미카 5,1-4ㄱ

화답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2독서

히브 10,5-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음

루카 1,39-45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불쌍한 목동들이 주님을 일이보았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루카 2,8)고 합니다. 주로 어린 목동들이었던 이 가난한 소년들이 차가운 밤, 들에서 허기진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차라리 양이었다면 털이라도 있어 추위를 면하련만, 차라리 짐승이었다면 풀이라도 있어 들이받기라도 하겠건만, 지치고 굶주린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딱정벌레처럼 온몸을 끌어안고 이 밤의 추위를 견디는 일 뿐입니다. 추위를 견디며 겨우 잠들었지만 유다 산골의 거센 모래바람이 악마처럼 소리치며 할깁니다. 그 소리는 늘 두려움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이 밤에 찾아온 두려움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두려워하는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루카 2,10-12)

천사의 알림을 듣고 목동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를 발견한 목동들은 그 아기에게 폭 빠져 모든 것을 잊고 자신들이 아기가 됩니다. 짐승 같았던 지난날은 사라지고 한없이 사랑받는 귀한 아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목동들이, 그 아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만에 하나 저 아이들이 예수 아기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저는 저들이 너무 불쌍해서 울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임마누엘)이 어린 목동들에겐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목동들이 가졌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이고, 또 주님을 더 잘 알아보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임을 일깨워줍니다. 천사는 구세주의 탄생을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천한 목동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비천함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빛은 더 환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둠일수록 주님의 빛은 더 강하게 비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부터 비칩니다. 그러니 목동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로 눈길을 돌리고, 발걸음을 옮길 때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목동들이 가졌던 기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소망합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18년 주님 성탄 대축일에

배기현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축복이 신자 여러분께
풍성히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교구 사제단 일동

● 교구청 직원 연수



교구청 직원들은 12월 14일 교구청 내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는 각 부서 수녀 및 직원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직원들은 미

사를 봉헌한 후 직장인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총대리 박창균 시메온 신부의 강의를 들었다.

● 예비신학교 졸업미사



2018학년도 교구 예비신학교 졸업미사가 12월 2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졸업미사에는 예비신학생 70여 명과 여학생 예비성소자들이 참석하여 한 해의 과정을 마무리하며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예비신학교를 개근한 학생들과 예비신

학교 졸업생 2명에게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구 성소국(국장 : 정연동 세바스찬 신부)은 한 해 동안 예비신학생들, 여학생 예비성소자들을 위해 기도 해주시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였다.

● 덕산동본당 연차총친목회



덕산동본당(주임 : 최봉원 야고보 신부) '천주의 모친 Co.'은 12월 2일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실내체육관에서 연차총친목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본당 주임 신부를 비롯한 레지오 단원 245명이 참석하였으며, 시작 전례와 기도로 행

사가 진행되었다. 레지오 단원들은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일치된 마음으로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덕산 '천주의 모친 Co.'이 교구 레지아 최우수 Co.으로 선정되어 이날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문정임 켜마 • 시인



추석 연휴가 끝나갈 즈음 단톡방에 이런 문자가 떴다.

한가위는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는지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운전하세요.

저는 추석날 형님 집에 그네의자 만들어 드리고 왔네요.

그러면서 영화에서나 보던 나무 그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얼른 댓글을 달았다.

하느님 제게도 저런 아우님 보내주세요. 다른 소원은 더 이상 말 안할게요.

다시 댓글.

문정임 누나야! 뭐가 필요하나 자재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 줄게요. ㅋㅋ

이리하여 펜션에서나 보던 고급진 수제 나무 그네가 2층 우리집 발코니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체 카톡인지라 다른 학우들도 나도 그럴 걸 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오지랖이 넓은 편이다. 남들이 못하는 이런 말 감히 해 본다. 사연인즉슨 신앙대학을 개강하고 몇 달 있어 어느 자매가 공소 건립 기금 마련으로 바자를 열고자 했다. 이때 목공제 작자이자 우리 기수 회장님은 얼른 새집 몇 개를 만들어 기증하셨다. 나도 쉼트 소품을 만들어 도와야지 생각하는 사이 없던 일로 되었고, 어느

날 ‘켄마 자매 이 새장 하실라우?’라고 해서 새에 관심 없으면서 새집을 사서 내 서재에서 그분의 마음을 더듬곤 한다. 결국 번죽 좋은 나에게 이런 것들이 오게 된 것이다.

그런 마음을 뭐라 형용할 길이 없어 나는 성령이라 부르기로 했다. 성경에 의하면 오순절 교회의 천장에서 불길 같은 혀가 널름거리고 빛이 쏘여지고 비둘기 같은 모습의 에너지가 분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그런 강렬한 것을 체험하기란 아주 드물다. 그날이 그날인 우리 신앙공동체는 일부러 이런 사건을 만들고 같이 체험하고 나누고 하는 사이 삼위의 위격을 미미하나마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성자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상으로 오신이라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이 새해가 왔다. 모닥불은 어우러져야 타오르고 포도송이는 덩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무 그네 이후 우리 신앙대학은 일사천리로 학사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고 각 분당에서의 여러 경험을 간증하며 공유하고 있다. 성령의 불쏘시개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봐야겠다. 마른 장작일지라도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제 기능을 하기에 탄력이 떨어진다.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타오를 불씨를 안고 있는 현재진행형 상태라는 점이 놀랍다.

기억할 사제

12. 30.(주일) : 故 현기호 신부 33주기



교구 신앙대학 제26기 모집

- ▶ **기간** : 2년 과정(1, 8월 방학)
매월 첫 (토) 14:00~(주일) 16:00 1박 2일
- ▶ **과정** : 2019년도 - 영성신학(강영구 신부), 윤리신학(강철현 신부), 구약 성경(정연우 신부), 교회론(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성령론·마리아론(정연동 신부), 철학(김호준 신부)
2020년도 - 신약성경, 그리스도론, 성사와 전례, 교회법, 교회사, 사회교리
- ▶ **지원자격** : 영세한지 만 2년 이상 된 평신도로 본당 주임 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만 65세 이하)
- ▶ **졸업특혜** : 신앙대학 졸업장, 교리교사 자격증 발급
- ▶ **등록비** : 교육관 숙박비 선택(2인실 54만원, 4인실 42만원)
- ▶ **교육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 ▶ **마감** : 12. 28.(금)까지
- ▶ **지원방법** :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의 입학 양식을 작성하여 사목국으로 접수
- ▶ **보내실곳** :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목국
- ▶ **문의** : 사목국 055)249-7021~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제 접수처

E-mail : samok1@cathms.or.kr
문의 : 사목국 055)242-6776



교구장 동정

일시 : 12. 24.(월) 20:00
장소 : 주교좌 양덕동성당
내용 :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일시 : 12. 25.(화) 10:30
장소 : 거창성당
내용 :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교 구

- **청년 간부 및 단체장 상반기 연수**
일시 : 2019. 1. 5.(토) 15:30~6.(주일) 14:30 1박 2일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 청년회 간부 리더십 함양 및 청년회 운영 전반 교육
대상 : 교구·지구 연합회장단, 본당 청년회 간부, 사도직 단체장, 대학 회장단
참가비 : 1인 5만 원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개인컵
접수 : 12. 26.(수)까지 청년부 Fax나 E-mail(youthchung1@cathms.or.kr)로 신청서 발송
문의 : 청년부 055)249-7065, Fax 055)249-7055
- **2019년 초등부 신입 복사학교**
일시 : 1차 - 2019. 1. 14.(월) 14:00~15.(화) 13:00(마산·진주지구)
2차 - 2019. 1. 15.(화) 14:00~16.(수) 13:00(창원·거제지구)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 2018년도 기준 초등부 신입 복사

참가비 : 1인 4만 5천 원(※교구사목비 면제본당 : 1인 3만 원) 계좌 - KEB하나은행 160-890023-05404(재)마산교구(입금자명 : 본당이름+복사)

신청 : 12. 31.(월)까지
문의 : 성소국 055)249-7061
※ 1, 2차 모두 차수 당 120명 선착순 접수

- **2019년 주일학교 대표교사 연수**
일시 : 2019. 1. 27.(주일) 09:30~16:00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 2019년 초, 중·고등부 대표교사
내용 : 2019년도 청소년국 사목방향 및 행사 안내, 교사관리 시스템 안내, 지구 행사 소개
참가비 : 1인 1만 2천 원
준비물 : 2019년 교사수첩, 개인 컵, 필기도구
신청 : 2019. 1. 11.(금)까지 신청서, 참가비를 청소년국 팩스발송 및 입금
문의 : 청소년국 055)249-7052~3

-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 김운환
담당판사 : 김정훈(도미니코) 신부
장소 : 교구 법원
마감 : 2019. 1. 10.(목)까지
문의 : 법원 055)249-7111

기관 · 단체

- **청년 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기 타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2월 19일 이스라엘 요르단**
대한항공 11일 (399만원)
- **4월 7일 터키 그리스**
대한항공 12일 (379만원)
※ 공동경비포함
분도여행사 ☎ 02)852-8525



라섹수술,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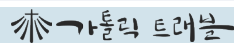
EX500엑시머레이저

창원시 웅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 (19년 4월 5일 출발, 전문 인솔자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쥬니어 음악학원
(피아노 · 바이올린)

유치부/ 초·중·고등부 / 일반부 입시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스카이힐링 파크 2층
055)263-9320, 010-2559-3551
원장 최은숙 가타리나



가톨릭신문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 ▶ 2019. 2/12 **동부유럽** 12일 370만원
- ▶ 2019. 2/14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2일 395만원
- ▶ 2019. 3/3 **발칸반도** 12일 360만원
- ▶ 2019. 3/14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 **꽃동네대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 신입생 장학금 전원 지급
· 취업률 총복 1위, 학생 1인당 장학금 총복 1위
모집학과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간호학과
원서접수 : 12. 29.(토)~2019. 1. 3.(목)
문 의 : 043)270-0100
-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일 시 : 2019. 1. 5.(토) 15:00~19:00
장 소 : 서울가톨릭대학 의과학 연구원 대강당 2층(서울성모병원 내)
대 상 : 청년 및 청소년, 일반신자 누구나
참배 : 1만 원(간식 제공)
주 최 :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문 의 : 02)6253-3373, 010-8360-3700
- **최봉도 신부 희망기도(내적치유 피정) 2박 3일**
일 정 : 2019. 1. 14.(월)~16.(수)/
2. 22.(금)~24.(주일)/ 3. 15.(금)~17.(주일)/ 4. 5.(금)~7.(주일)/ 5. 17.(금)~19.(주일)/ 6. 14.(금)~16.(주일)
장 소 : 파주 민족화해센터/ 피정비 : 17만 원
문 의 : 010-6254-0057
-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 간 : 2019. 3.~12.(2월 예비학교)
내 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 택 :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 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6.4%)
문 의 : 02)828-3600, www.donbosco.ac.kr
-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 의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팔용동본당 제7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허원(요한)
사목부회장(남성) : 김동원(토마스)
사목부회장(여성) : 최숙경(미카엘라)
총무 : 이경범(야고보)
기획관리분과장 : 이경진(마르티노)
전례분과장 : 안운영(스콜라스티카)
복음화분과장 : 김옥련(세레나)
구역분과장 : 홍성미(율리아나)
시설관리분과장 : 박화출(바울리노)
홍보분과장 : 황재화(요셉)
가정분과장 : 김종길(미카엘)
청소년분과장 : 이경리(프란치스코)

하대동본당 제1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황태부(요셉)
사목부회장(남성) : 김철우(요셉)
사목부회장(여성) : 김애란(데레사)
총무분과위원장 : 김환수(아우구스티노)
기획관리분과위원장 : 최태문(시몬)
전례분과위원장 : 이정희(소피아)
복음화분과위원장 : 고영분(아녜스)
신앙재교육분과위원장 : 박태수(아론)
청소년분과위원장 : 주성일(프란치스코)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박미라(에스텔)
가정사목분과위원장 : 박종혁(대건 안드레아)
구역분과위원장 : 김삼순(미카엘라)
홍보분과위원장 : 백용주(야고보)
시설분과위원장 : 이성원(요한)

경화동본당 제2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박홍식(테오도로)
사목부회장(남성) : 손영복(야고보)
사목부회장(여성) : 김춘덕(스콜라스티카)
부회장(성전건축추진위원회) : 전재일(스테파노)
총무부장 : 이정제(요셉)
재경분과장 : 김민수(가브리엘)
전례분과장 : 홍성식(베냐시오)
복음화분과장 : 배정순(아녜스)
지역분과장 : 정미정(바실라)
사회복지분과장 : 이정애(스텔라)
시설관리분과장 : 노용찬(미카엘)
전입·냉담교우관리분과장 : 김미진(클라라)
가정분과장 : 김종숙(비르짓다)
청소년분과장 : 최규훈(토마스 아퀴나스)
건축분과장(성전건축추진위원회) : 박점수(요한)
재경분과장(성전건축추진위원회) : 손양길(하상 바오로)

중앙동본당 제2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김호광(라파엘)
사목부회장(여성) : 김장임(체칠리아)
총무 : 원수영(요한)
전례분과장 : 손정숙(루치아)
교육분과장 : 선명숙(마리아)
구역분과장 : 최영애(루치아)
재경분과장 : 백승재(미카엘)
사회복지분과장 : 진원도(안드레아)
시설분과장 : 한충남(시몬)
청소년분과장 : 이창호(시몬)
레지오(꼬미시움) : 김정혜(테클라)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12. 24.(월)		주님 성탄 대축일 관계로 기도회 쉽니다.			010-5072-5612
창원지구						010-4553-742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라파엘여행사

- ◆ **이스라엘 9일 2/2** (375만원)
-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3/13** (289만원)
- ◆ **나가사키 4일 2/27, 3/19** (94만 9천원)
- ◆ **다낭 5일 2/24, 3/10** (12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교구보 2019년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 문 의 : 미디어국 055)249-7072



다니엘



사자 굴속에 있는 다니엘
출처: 굿뉴스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는 기원전 605년 왕이 되어 42년간 다스리다 BC 562년 죽었다. 예루살렘성전 파괴자로 알려져 있지만 바빌론엔 많은 건축물을 남겼다. 바벨탑과 바빌론 공중정원은 그의 작품이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어느 날 높이 예수 암마Amma의 거대한 금상을 평야에 세운다(다니 3,1). 바빌론 수호신 마르두크Marduk 상이었다. 암마는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로 45cm 정도다. 60암마면 대략 27m. 임금의 명령을 내려 신상神像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에 처하겠다고 한다. 제막식 날 신하들은 모두 절하며 금상을 신으로 받들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부한다. ‘절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질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임금님이 죽으려 해도 주님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답변이었다(다니 3,17).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의 유명인사로 떠오른 다니엘은 유대 출신 젊은이였다. 당시 바빌로니아는 포로지의 왕족과 귀족자녀를 모아 특수교육을 시켰다.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바빌론 문화와 종교를 익히며 특수 환경에서 살았다. 대열에 끼인 다니엘도 지시에 따라 훈련받았다. 이름도 벨트사차르로 개명했다(다니 1,7). 어느 날 왕의 시종侍從으로 발탁되면서 꿈 해몽의 기회를 만난다. 무서운 꿈에 시달리던 왕에게 정확한 해석을 알려줬던 것이다. 주님께서 개입하신 일이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고심 끝에 불가마에 던져 죽게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불가마 속에서 그 유명한 세 젊은이의 찬미노래를 남겼다(다니 3,24-45). 수도자 성무일도에 남아있는 기도문이다. 이후에도 다니엘은 함정에 빠져 사자 굴에 던져지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우상숭배 강요와 신앙배척이 공공연했던 포로지에서 다니엘의 존재는 커다란 위안이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다니엘은 증명했다. 이러한 다니엘이었기에 그의 이름을 빌린 많은 책들이 등장했다. 그중 하나가 구약의 묵시록으로 알려진 다니엘 예언서다. 기원전 2세기 희랍세력 박해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네부카드네자르 시대가 배경이었기에 최근까지 논란이 되어왔다. 다니엘 말뜻은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뜻이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길림

김현주 올리아나 · 가톨릭여성회관 관장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이는 2019년 교구장 사목교서의 제목이기도 하다. 배기현 주교님은 우리 민족이 ‘평화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반갑고 기쁜 일이라며 교구민들에게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화해와 용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며 형제끼리 혈통과 충절하여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이렇게 굳어져 갈라진 마음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한다고 단숨에 풀릴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새터민들끼리도 평양에서 살다 온 사람과 함흥 어느 시골에서 온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남한 내에서도 태극기 부대와 촛불 시민의 생각이 또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이제부터 못물처럼 쏟아질 정부, 지자체의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여러 사업들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새터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사람이란 자고로 두 명만 모여도 ‘다름’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고 조직 내에서 그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 혹은 지옥이 되기도 한다. 특히나 강자와 약자 소위 갑을 관계로 규정되는 관계에서는 도무지 평화가 가당키나 한지 의구심이 생긴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는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찌 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물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라며 메시아가 도래할 나라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늑대며, 표범이고, 사자로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반성하며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도 늑대와 양,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정작 당신은 누울 자리조차 없이 가난하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미와 경배를 드린다.